



행사스케치

지속가능한 가금산업 발전 방안 특별좌담회

글 : 편집부

지속가능한 가금산업 발전 방안 특별좌담회



- **일 시** : 2011. 3. 8(화) 15:30~19:00
- **장 소** : 농협중앙회
- **참석자** : 좌장 및 패널 13명, 전문지 기자 10명 등 48명
- **좌 장** : 한국축산경제연구원 노경상 원장
- **패 널** : 농식품부 변동주 사무관, 서울대학교 김재홍 교수, 대한양계협회 이흥재 부회장, 한국오리협회 이창호 회장, 한국계육협회 최상영 전무, 한국토종닭협회 문정진 부회장, 한국계란유통협회 강종성 회장, 산란계자조금관리위원회 이상호 위원장, 한국 양계농협 오정길 조합장, 축산과학원 서옥석 과장, 한국사료협회 박장희 고문
- **좌담회 주제**
 - 1부 : AI 발생 및 확산배경
 - AI 발생 확산배경과 대응상의 문제점
 - AI 조기종식 및 재발방지를 위한 방안
 - 2부 : 가금산업 선진화 방안
 - 국내 가금산업의 조속한 재건방안
 - AI 이후 가금산업이 나아 가야할 발전방향



① ② ③ 지속가능한 가금산업 발전방안 모색 좌담 모습

농협중앙회는 3월 8일 AI조기종식을 통한 국내 가금산업 경쟁력제고와 가금산업 기반 안정화를 위한 정책사업 발굴 및 건의를 위하여 좌담회를 개최하였다.

회의에 참여한 가금산업발전 특별위원회는 AI확산배경과 재발방지를 위한 방안과 가금산업의 선진화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지속가능한 가금산업 발전방안 좌담회’에서 제기된 가금산업 재건 방안 골자를 간추렸다.

- AI는 인수공통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만큼 잠재위험성 및 폭발력이 큰 만큼 위험성의 재인식이 필요함
- AI발생은 감염된 철새의 대량유입으로 감염위험 요소가 산재해 있었고 출하 전 검사확대로 가금감염을 사전에 방지했어야 함
- AI농장유입 차단을 위하여 농장출입 차량, 사람에 대한 소독과 농장별, 동별 차단방역을 실시하고 신발 또한 외출용과 농장용으로 구분 사용하고 농장별 출입장화도 구비해야 하며,
- 사료 및 사료 잔사물(지대, 사료 찌꺼기 등)에 대한 철

새의 접근을 방지하고 농장가축의 외부 활동을 제한시키고 쥐도 잡아야 함

- 항만에 야적된 사료원료를 통하여 AI의 전염 가능성 검사필요
- 농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역에 대한 관리규정과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하고 농장출입 장비, 기자재에 대한 매뉴얼화가 필요함
- 잔반 사료의 부실한 관리로 농장내 AI 유입원이 되기도 하여 잔반사료 관리와 안전성에 대한 감독강화 필요
- 현재 지자체의 방역역량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지자체의 방역시스템 개선과 담당 직원의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 역학관계조사는 원인규명과 함께 전염차단에 목표를 두어야 하며 친환경 모델은 국내실정에 맞게 기준을 정해야 함
- 육계부분 위기(유가, 사료가격 폭등 등)상황에 대비 대응 매뉴얼 및 기금조성이 필요함
- 환우 시기를 몇 주령으로 규제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F1을 생산하는 농장에 대한 제재로 농장에 우량 종자



행사스케치

지속가능한 가금산업 발전 방안 특별좌담회

를 공급해야 생산성이 높아짐

- SOP 기준이 현장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이 많아 개선이 필요하고 출하 전 검사는 반영되어야 할 부분이며, 예방적 살처분은 농가와 사회적 부담이 크므로 재검토가 필요하고 협회별로 소독약선택, 사용방법 등에 대한 자구적인 교육을 실시해야 함
- 소비자로부터 신뢰받는 축산물 생산이 필요한 시기이며 후방시설(사료공장, 도계장) 3km 이내에 가금사육 시설 설치를 제한할 필요가 있음
- 업계가 도축장, 사료공장 인근의 소규모 농가가축을 매입 처리하여 AI 유입을 방지한 성공사례를 지자체에서 적용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음
- 농협에서는 총 40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정부와 생산자가 각 50%씩 부담) 전국 광역 계란유통센터 3개소를 건립하여 계란유통에 의한 전염성 질병확산을 최소화할 계획임
- 경쟁논리를 가금업계에 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음. 농가소득, 소비자 만족, 공익적 기능이 고려

된 양계업 정립이 필요함

- 농협에서 검토 중인 계란유통센터는 계란유통의 특수성을 먼저 이해하고 한국계란유통협회와 협력이 필요한 부분임
- 협회간 협력을 위해 각 협회의 이익을 초월한 별도의 기구를 만들어 중장기적 대책수립이 필요한 시점임

한편 농협 가금산업발전 특별위원회는 가금산업 경쟁력 제고와 AI조기종식을 위해 지난 3일 첫 회의를 갖고 본격운영에 들어갔다.

농협중앙회 주관으로 운영되는 가금산업발전 특별위원회는 지난 연말 발생한 HPAI 발생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국내 가금산업의 재건과 발전을 위해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을 모색한다.

발전위원회는 3월부터 고병원성AI가 종식할 때 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될 계획이다.

특히 산·학·연·정·농의 대표자 및 실무자로 구성된 위원회는 역할분담을 통해 가금산업 발전을 도모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우리 협회도 가금산업발전 특별위원회의 자문위원(이창호회장) 및 대책위원(이강현전무)으로서 가금산업의 조기안정화 기여에 앞장 설 계획이다.

